

한용운과 숨어있는 황금의 꽃

고재석(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

1. 없어진 꽃밭

"취미로 일삼는 것은 꽃나무를 저 뜰에다 심어놓고 아침저녁 물주고 그 생생한 잎사귀, 어여쁜 꽃송이들이 자라나는 양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즐겁고 재미나는 일이지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조차 없으니깐요." 만해 한용운(1879~1944) 선생은 1936년 서울 성북동 자택 심우장을 찾아온 『삼천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계초 방응모 선생 등의 지원으로 1933년 지어진 심우장은 만해가 만년을 보낸 곳. 조선총독부 방향을 등지고 북향(北向)으로 지은 이 집에서 만해는 꽃을 돌보는 것을 가장 즐거운 일로 꼽았다.

최근까지 꽃밭이 없었던 심우장에 들국화 등 가을꽃이 피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소장 고재석 교수)가 심우장 뜰에 꽃밭을 만든 것. 석사 학위 논문을 만해와 꽃을 주제로 쓴 고재석 교수는 "만해 선생이 심우장의 작은 꽃밭에서 꽃들과 대화하며 '만유(萬有)의 이법'을 묻고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을 보듬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앞으로 꽃밭을 잘 가꾸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만해와 꽃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올해 만해축전의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16일 오후 3시 심우장에서 꽃밭 복원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17~18일에는 백담사를 순례하고 문학 강연을 듣는 행사를 마련한다.¹⁾

임시로 조성한 심우장의 꽃밭 사진을 싣고, 그 옆에 '萬海 만년 보낸 곳에 꽃밭 복원식'이라고 부제를 단 위의 기사를 보는 마음이 착잡하다. 만해의 사상과 문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많고, 만해학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그를 문화기억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마저 든다. 우리는 그가 개인신화의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켰고, 『님의 침묵』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하였으며, 꽃밭 가꾸기를 평생의 취미로 삼았던 그의 삶을 살펴보면 한용운은 용운龍雲이라는 법명과 만해萬海라는 법호에 걸맞게 많은 사랑과 오해를 동시에 받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지도 모른다.

2. 한용운의 꽃과 개인신화

인생에 기구한 일 많이 겪으니
이 심경은 천추에 아마 같으리.
일편단심 안가시니 밤달이 차고
흰머리 흘날릴 제 새벽구름 스러짐을
고국강산 그 밖에 내가 섰는데
아, 봄은 이 천지에 오고 있는가.
기러기 비껴 날고 북두성 사라질 녘
눈서리 치는 변경 강물 흐름을 본다.

人生多歷落
此意千秋同
丹心夜月冷
蒼髮曉雲空
人立江山外
春來天地中
雁橫北斗沒
霜雪關河通

반평생 만나니 기구한 일들
다시 북녘땅 끝까지 외로이 흘러왔네.
차가운 방 안에서 비바람 걱정하느니
이 밤새면 백발 느는 가을이렸다.

半生遇歷落
窮北寂寥遊
冷齋說風雨
晝回鬢髮秋

—「외롭게 노니는 시 두 수孤遊二首」

한용운은 독니를 감춘 일본에게 물려 썩어 들어가는 상처를 부여안고 투쟁을 하기로 결심했던 조선의

1) 김한수, 「심우장 뜰에 가을꽃이 피었네요」 『조선일보』(2015.10.15)

필로테테스philoktetes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소외와 고독 속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자학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형식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가 만주로 모색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은 임제종 종무원 현판을 철거당하고(1912.6.21) 실의에 빠졌던 1912년 가을 무렵이었다. 그는 이때 만주에서 신흥군관학교의 김동삼1878-1937을 만나 많은 의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시는 이를 전후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불타는 집과도 같은 조선을 등지고 만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갈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상처난 짐승처럼 표호하며 만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1912년 7월 22일, 이회광1862-1933이 석전 박한영1870-1948과 화해하면서 남북의 갈등은 각항사로 수렴되기 시작한다. 이회광이 박한영에게 불교사범학교의 후신으로 설립 예정인 고등불교강숙에서 강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1912년) 7월 22일에 원장 이회광 사師가 박한영 사를 동대문 외외 주지회의로 청요講邀하여 과거사는 선천先天에 병부并附하고 금일위시今日爲始하여 오교 미래의 공동적으로 진행하자 함에 박한영 사는 만족한 환심歡心으로 쾌허快許하여 금추今秋부터 본원 내에 고등불교 강당을 설립하고 해씨該氏는 강사가 되기로 내정하였다더라.)²⁾

박한영은 이때부터 『조선불교월보』에 글을 발표한다. 물론 한용운은 임제종운동을 함께 주도했던 박한영의 이런 결정이 못내 섭섭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을 통하지 않고 진실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절대선에 대한 요구가 크면 클수록 세상은 유일한 존재의 장이자 타락한 현실로 다가온다. 진실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거부하지만 현실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역설.....

고슴도치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어미 고슴도치는 새끼를 품어주면 따갑고, 떨어지면 추우니까 가장 가깝고도 멀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추위를 견뎌내고 한다. 식민지 지식인들은 고슴도치를 닮았다. 이들은 타락한 현실과 초월적인 진실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타락한 현실을 벗어던지면 마음은 깨끗하나 이상을 실현할 발판이 없어지고, 현실과 타협하면 이상이 무너져 괴롭다. 진흙 속에서 피는 연꽃의 생리와 중생이 다 나올 때까지 병을 앓는 유마의 고통은 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은 한용운에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는 고통을 쾌락으로 흔쾌히 수락했던 점에서 남다른 뿐이다.

평소 교학의 재정립을 주장하고 있던 석전 박한영에게 종단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근대적 교육기관의 설립은 절실했다. 그래서 이회광의 제의를 수락한 것을 두고 타협이고 변절이라고 비난한다면,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선가상승禪家相承의 위의를 지킨 선승의 행위는 현실도피에 다름 아니다. 아니, 이런 논리에 의하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것은 굴복이며, 유마의 고통은 투쟁하지 못하는 자의 비겁일 수밖에 없다. 숲에 가려 하늘을 보지 못하면 불행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은 더욱 불행하다.

고슴도치의 교훈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분리와 융합, 창조적 거리두기를 당시 불교계에 적용한다면, 승려들은 체제타협적인 개량주의자와 체제거부적인 은둔주의자, 그리고 행동주의자로 나누어진다. 한용운은 세 번째 유형을 대표한다. 하지만 그는 이 유형을 대표하는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며, 이 유형 또한 그렇다. 한용운의 문학 나아가 한국 근대문학의 정신사적 성격은 어떤 가치 총체를 수락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해할 때 그 전모가 드러난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진실과 충정을 오해한 세력들에게 배척을 당한다. 그는 이상과 현실의 엇갈림 속에서 다시 한 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다.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것도 벌써 20년 전 일이니 기억조차 안개같이 몽롱하다. 조선 천지에 큰 바람과 큰 비가 지나가고 일한이 병합되던 그 이듬해이니 아마 1911년 가을인가보다. 몹시 덥던 더위도 사라지고, 온 우주에는 가을 기운이 새로울 때였다. 금풍金風은 나뭇잎을 흔들고 벌레는 창 밑에 울어 멀리 있는 정인의 생각이 간절할 때이다. (중략)

내가 죽다가 살아난 일도 이러한 주위 공기로 인하여 당한 듯하다. 그때는 물론 어찌하여 그런 일을 당하였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의문에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조선에서 온 이상한 정탐이라는 혐의를 받아서 그리 된 듯하다.

어느 가을날이었다. 만주에서도 무섭게 두메인 어떤 산촌에서 자고 있는데 나를 배행한다고 2, 3인의 청년이 따라

2)「박한영 사 환심」,『조선불교월보』7(1912.8) p.65.

섰다. 그들은 모두 20 내외의 장년인 조선 청년들이며, 모습이나 기타 성명은 모두 잊었다. 길이 차차 산골로 들어 '굴라재'라는 고개를 넘는데,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이 들어서 백주에도 하늘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중략)

이때! 뒤에서 따라오던 청년 한 명이 별안간 총을 놓았다! 아니, 그때 나는 총을 놓았는지 무엇을 놓았는지 몰랐다. 다만 '땅' 소리가 나자 귓가가 섰혔다. 두 번째 '땅' 소리가 나며 또 총을 맞으며 그제야 아픈 생각이 난다. 뒤미처 총 한 방을 또 놓는데 이때 나는 그들을 돌아다보며 그들의 잘못을 호령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말로 목청껏 질러 꾸짖었다. 그러나 어찌한 일이냐? 성대가 끊어졌는지 혀가 굳었는지 내 맘으로는 할 말을 모두 하였는데 하나도 말은 되지 아니하였다. 아니, 모기 소리 같은 말소리도 내지 못하였다. 피는 땀줄기 같이 뻗어났다. 그제야 몹시 아픈 줄을 느끼었다.

몹시 아프다. 몸 반쪽을 떼어가는 것같이 아프다! 아! 그러나 이 몹시 아픈 것이 별안간 사라진다. 그리고 지극히 편안하여진다. 생에서 사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다만 온몸이 지극히 편안한 것 같더니 그 편안한 것까지 감각을 못하게 되니, 나는 이때에 죽었던 것이다. 아니,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죽는 것과 똑같은 기절을 하였던 것이다.

평생에 있던 신앙은 이때에 환체를 드러낸다.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아름답다! 기쁘다! 눈앞이 눈이 부시게 환하여지며 절세의 미인! 이 세상에서는 얻어 볼 수 없는 어여쁜 여자, 섬섬옥수에 꽃을 쥐고, 드러누운 나에게 미소를 던진다. 극히 정답고 달콤한 미소였다. 그러나 나는 이때 생각에 총을 맞고 누운 사람에게 미소를 던짐이 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상이 설레었다. 그는 문득 내게로 꽃을 던진다! 그러면서 "네 생명이 경각에 있는데 이찌 이대로 가만히 있느냐?" 하였다. (중략)

그러나 뼈 속에 박힌 탄환은 아직도 꺼내지 못한 것이 몇 개 있으며, 신경이 끊어져서 지금도 날만 추우면 고개가 휘휘 돌린다. 지금이라도 그 청년들을 내가 다시 만나면, 내게 무슨 까닭으로 총을 놓았는지 조용히 물어보고 싶다.³⁾

임제종운동의 좌절에서 비롯된 절망을 거부하는, 무모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은 그를 "무슨 이상한 불안과 감격과 희망 속에 싸여 있던" 만주로 이끌었지만, 그곳에서 일개 승려인 그의 존재감이란 예상보다 훨씬 미비하거나 불온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1905년, 세계만유의 꿈을 품고 떠났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장당할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 가까스호 귀국했던 그는 이번에서 만주에서도 정탐으로 오인 받고 저격을 당한 것이다. 그는 1912년 겨울, 아픈 몸을 이끌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때 입은 총격의 후유증으로 평생 체머리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는 이번에도 상처만 안고 돌아왔던 것일까. 아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사일생으로 귀국한 후 석왕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승려 수업을 받고 1907년에 독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관세음보살을 친견⁴⁾을 통해 평생 추구하던 황금의 꽃, 그 깨달음의 꽃을 획득한다. 하지만 그가 승려였던 만큼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상에 나타난 신비체를 관세음보살로 해석한 것은 납득이 되지만, 꽃을 던져 살아났다는 것은 다소 극화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꽃이 단절의 논리와 반복의 논리를 동시에 보여주는 정중동의 실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의문은 쉽게 풀린다.

꽃은 피면서 지고, 지면서 핀다. 꽃은 종교현상에서 나타나는 역의 합일coincidentia oppositorum을 가장 극적으로 체현하는 자연이자 초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적 문화범주 특히 불교 문화권에서 연꽃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섬섬옥수의 미인이 던져주는 꽃을 보고 살아났다는 말은 타나토스Thanatos에 대한 에로스Eros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때 타나토스란 자신을 파괴하고 생명이 없는 무기물로 환원시키려는 죽음의 본능이며, 에로스란 자기를 보존하고 통합하는 본능을 말한다. 만해는 모의죽음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 태어난다. 이후 그의 삶과 문학에서 꽃은 완상의 대상을 넘어 하나의 원형상징 또는 개인신화personal myth로 기능한다.

기미년 독립선언서 발표 후에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옥고를 겪고 나온 약 1개월을 전후하여 조선불교청년회의 주최로 YMCA회관에서 출감 최초의 강연회가 열렸던 것인데 이에 대한 연사는 만해 선생 한 분이었던 것이며 (중

3)「죽다가 살아난 이야기」,『한용운전집』1(신구문화사,1973) pp.251-253. 이하 『전집』

4)R, Ellwood. Jr. *Mysticism and Religion*, Prentice Hall, Inc.1980. p.29. 신비체험이란 일상적이 아닌 전혀 다른 경험 속에서 직접적이면서도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심오한 실존과의 합일을 경험하게 해주는 궁극적이고 신적인 실재와의 만남을 체험 당사자가 그 즉시 또는 나중에 종교적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경험이다.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1842~1910)는 신비체험의 특징으로 신성성ineffability, 분별성noetic quality, 순간성transiency, 수동성passivity을 들고 있는데 한용운의 체험은 이와 부합한다.

략) 이 「철창철학」의 강연이 있던 수개월 후 천도교 기념관에서 전조선학생대회 주최로 종교강연이 개최되었던 것인데 (중략) 제일 먼저 최린 씨가 연설한 후에 만해선생이 「육바라밀」이라는 제목으로 장광설을 하였던 바 청중의 열광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측의 김필수 목사는 연설을 사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만해 선생이 단에서 물러나 올 무렵에 손으로 원을 그리고 주먹으로 그가 공중에다 그린 원에 한 점을 찍으며 하단하였던 것인데 이 신륵身輪으로부터 받은 대중의 인상은 자못 놀라운 것이었다.⁵⁾

말하자면 그는 생활의 환경으로나 성격으로나 아주 건조고결한 분이다. 그러나 그는 꼭 한 가지의 기호가 있으니 화초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의 거처하는 방에는 언제나 화초분이 몇 개씩 있고 또 정원에도 화초를 많이 재배한다. 사(주; 불교사)의 일을 보고 돌아가면 화초에 물주기와 재식栽植하기를 큰 낙으로 삼는다. 그는 화초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재작년 7월 학생사건(주; 1929년 광주학생의거) 때에 그가 일시 감금이 되었는데 그는 그의 친지 모씨에게 면회를 청하고 특히 자기의 재배하는 화초를 움 속에 잘 넣어서 얼어 죽지 않게 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그 화초는 자기 생명의 한 부분이라고까지 말하였다 한다. 그만하면 그의 화초 기호벽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⁶⁾

그가 허공에 그렸다는 신륵은 일원상一圓相이며, 깨달음의 꽃이다. 그는 말한다. “오悟한 자에게는 색성향미촉법의 육진六塵도 호용互用되는 것이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므로 진공묘유가 비밀비재한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육진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영운조사가 도화를 보고 견성하였으니 그것은 누구라도 아는 일이지만 영운이 도화를 보고 견성할 때에 그 도화가 영운을 보고 견성한 줄은 천고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은 일대한사다.”⁷⁾라고. 이후 ‘자기 생명의 한 부분’인 꽃은 『유심』(1918)에서 시도한 초기시나 수필을 통해 다양한 의미로 드러나며 『님의 침묵』(1925)에서는 ‘님’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새生命의꽃에 醉하랴는 나의님” “죽음을 芳齋이라고하는 나의님”(「가지마세요」), “沙漠의꽃”(「?」) “옛梧桐의 숨은소리”(「찬송」), “愛人の무덤위의 피여있는 꽃처럼 나를 울리는 벗” “옛 무덤을 깨치고 하늘끝까지 사뭇치는 白骨의 香氣”(「타골의 시GARDENISTO를 읽고」)..... 꽃은 깨달음을 구체화한 현상인 동시에 본질이었던 셈이다. 그래서일까. 만해는 취미는 어떤 데다 붙이시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요사이는 날씨가 추워서 밖으로 나가 산보 같은 것은 못하지만은 이제는 차차 따뜻해 오면 하루에 한번쯤은 이리저리로 돌아다니기도 하겠지마는 그중 취미로 일삼는 것은 꽃나무를 저 뜰에다 심어놓고 아침저녁 물주고 그 생생한 잎사귀, 어여쁜 꽃송이들이 자라나는 양을 바라다보는 것이 가장 즐겁고 재미나는 일이지요. 그밖에는 아무 것도 아는 것조차 없으니까요.⁸⁾

3. 풍문과 역사 사이에서

기존의 만해연보에서는 임제종운동의 실패 이후 굴라재 고개에서 저격을 당할 때까지의 행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원종 증무원 설립 총회 참석, 박한영 방문, 한일합방, 승려 결혼에 대한 건백서 제출, 화산의숙 강사 취임, 호남 지역 사찰 순례 강연, 『조선불교유신론』 탈고, 임제종운동 관장대리로 선출, 사찰령 발표, 남북의 타협과 조선선교양종으로 종지 통일, 만주 여행과 신비체험.....” 일련의 사건들이 1908년 가을부터 1912년 겨울까지 일목요연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대부분 “동북삼성으로 망명을 떠났다가거나 한일불교동맹조약을 분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조선 청년들에게 저격을 당할 만큼 만주에서도 입증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귀국 후 『조선불교유신론』을 간행(1913.5.25)하고, 표충사에서 강연(1913.9.20)을 하면서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만주행은 망명이라기보다는 임제종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떠났던 여행이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만주 망명설이나 한일불교동맹조약 분쇄설은 임제종운동의 진행과정, 그 빛과 그림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

5) 최범술, 「철창철학」, 『나라사랑』제2집(외솔회, 1971) pp.88~89.

6) 유동근, 「만해 한용운씨 면영」, 『한용운사상연구』(민족사, 1980) p.18.

7) 「선과 인생」, 『전집』2 p.216.

8) 「심우장에 참선하는 한용운 씨를 찾아」, 『전집』4, p.408.

문에 빛어진 심정적 옹호론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혼란스러운 연보들의 세목을 살펴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만은 아니다. 이런 오류를 시정하지 않는 한 그는 앞으로도 문화기억으로 남아 우리곁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이는 그는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㉗박노준 . 인권환—경술년(1910) 8월 국치의 슬픔을 참지 못하고 중국 동북삼성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으로 만해의 망명생활의 첫걸음이기도 하였다.(p.26.)

㉘『나라사랑』—1909년 『불교유신론』을 발표. 회양군 금강산 표훈사에서 강의하다. 1910년 8월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해 중국 동북삼성(만주)으로 망명의 첫걸음을 내딛다. 1911년 박한영 진진웅 장금봉 등의 동지와 함께 한일 불교의 동맹조약을 분쇄하다. 장단군 화장사에서 「여자삭발론」을 저술하다.

㉙『한용운전집』—1909년 7월 30일 강원도 표훈사 불교강사 취임. 1910년 9월 20일 경기도 장단군 화산강숙 강사에 취임하다. 승려취처 문제에 관한 건백서를 두 차례나 당국에 제출하여 불교계에 물의를 일으키다. 『조선불교유신론』을 백담사에서 탈고하다. 박한영 진진웅 김종래 장금봉 등과 순천 송광사 동래 범어사에서 승려 궤기대회를 개최하고 한일불교동맹 조약체결을 분쇄하다. 범어사에 조선임제종 중무원을 설치하여 3월 15일 서무부장, 3월 16일 조선임제종 관장에 취임하다. 그후 중무원을 동래 범어사로 옮기다. 1911년 8월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하여 만주로 망명하다. 1912년 경전을 대중화하기 위해 『불교대전』 편찬을 계획하고 경상남도 양산 통도사에서 대장경 1,511부 6,802권을 열람하기 시작. 장단군 화장사에서 「여자단발론」탈고.(원고는 현재 전하지 않음)

㉚임중빈—상동.

㉛고은—상동.

㉜김학동—1909년 금강산 표훈사에서 강의. 1910년 8월 중국 동북삼성(만주)으로 망명. 1911년 귀국하여 친일불교에 대한 반대운동과 한국불교의 현대화운동을 벌임.

㉝고명수—1909년 7월 30일 강원도 표훈사 불교강사에 취임. 1910년 9월 20일 경기도 장단군 화산강숙 강사에 취임. 같은 해 백담사에서 『조선불교유신론』 탈고. 1911년 박한영 진진웅 장금봉 등과 순천 송광사, 동래 범어사에서 승려 궤기대회를 개최하고 한일불교동맹 조약체결을 분쇄. 3월 15일 범어사에서 조선임제종 중무원을 설치하여 서무부장에 취임. 3월 16일 조선 임제종관장서리에 취임. 같은 해 가을 만주를 주유하면서 독립지도자들을 만나고 귀국. 1912년의 경우 『전집』과 같음.

㉞김삼웅—고명수의 「연보」와 같음.

㉟한중만—1909년 일진회 한일합방을 건의. 1910년 10월 6일 이회광, 조동종의 대표인 히로쓰弘津說三와 7개조의 굴욕적인 연합맹약을 독단적으로 체결. 현재의 수송동에 각항사를 지어 원종 중무원을 이전하고 조선불교중앙회무소 겸 중앙포교소를 설치함 한용운 대처제도의 합법화를 중추원 의장 김윤식과 통감부에 각각 건의. 『조선불교유신론』 탈고함. 『원종』 발행(김지순) 1911년 박한영 진진웅 한용운 장금봉 등이 송광사에서 임제종을 설립하여 경운노사를 임시관장으로 추대하고 이회광의 원종과 맞섬. 관장대리에 한용운이 선임되고 임제종 중무원을 범어사로 이전. 총독부 7조의 사찰령과 8조의 시행규칙을 반포하고 30본산을 정하여 한국불교를 장악함(9월 1일) 따라서 임제종과 원종은 유명무실해지고 불교 사학교법도 자연히 흩어짐. 한용운 만주로 망명. 1912년 임제종이 서울 대사동에 조선임제종중앙포교당을 설립함. 제1차 본사주지총회에서 30본산주지회의원 설치를 합의함. 경허 입적. 『조선불교월보』 발행(권상로)

㊱최동호—『전집』과 같음.

㊲동국대학교백년사—1910년에는 만주로 가서 박은식 신채호 등 독립지사와 뜻을 함께했으며 귀국 후에는 강연회를 통해 대중을 교화하고 불교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4. 꽃의 문학적 형상화

“보통문은 선한문체鮮漢文體, 단편소설은 한자 약간 섞은 시문체, 신체시가는 장단격조長短格調 수의隨意, 한시는 즉경즉사即景即事”.

한용운은 『유심』에 문예현상공고를 내고 문체개혁을 시도한다. 초기 자유시 「심」은 만물의 동일체성으로 볼 때 삼라만상 그 어느 것이 전심傳心の 비결이 아니겠느냐는 「고통과 쾌락」(1호)을 압축 . 생략 . 변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줄글 형태로 진술한 것이다.

心은心이니라

心만心이 아니라非心도心이니心外에는何物도無히니라
 生도心이오死도心이라
 無窮花도心이오薔薇花도心이니라
 好漢도心이오賤丈夫도心이니라

—「심」에서

이 시의 비유방식은 직선의 방정식과 같다. 유심 또는 법신이 X라면 응화인 만물일체는 Y가 되고,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의 유사성과 관련성을 유추하여 동격으로 병치하면서 무한한 의미수렴과 확장이 이루어진다. 대립적인 관념차를 소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충격적인 의미를 부여한 계사은유copula metaphor다. 이런 은유는 비로자나Vairocana의 이름으로 불리는 법신Dharma-kaya을 우주 자연 전체의 본체로 보며, 모든 현상들을 응화avatara, sambhava로 간주하는 화엄적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흔히 인격적 실체로 묘사되는 법신은 수많은 개별적 제법들이 불가분리의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연기의 주체이다.⁹⁾

대부분의 신체시가 영탄조로 말의 낭비를 하고 있을 때 추상적인 관념을 상즉상입의 원리로 구체화함으로써 상상력의 확대를 도모한 이 시의 의미는 적지 않다. 일심, 일승, 유심, 금강산, 태양, 우담발화, 황금의 꽃은 결국 깨달음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러나 아직 한문체와 국한문체의 통사구조에 익숙한 언어습관을 벗어나지 못해 문어투의 종결어미가 우세하다. “선생의 문학은 주로 비분강개와 기다리고 하소연하는 것과 자연관조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⁰⁾는 지적과 달리 초기시에는 교술적인 태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배를 띄우는 흐르문 그근원이 멀도다 송이큰꽃나무는 그뿌리가깊도다
 가벼이날이느떠러진입새야 가을바라미구췌미라
 셔리아래에 푸르다고 구태여 못지마라 그대(竹)의 가운데는 무슨걸림도업느니라
 美의音보다도妙흔소리 거친물스결에돛대가났다
 보나냐새별가튼너의눈으로 千萬의障碍를打破하고 大洋에到着하는得意의波를
 보일리라宇宙의神秘 들일리라萬有의妙音
 가자가자沙漠도아닌氷海도아닌우리의故園
 아나가면뒤라셔보랴 한송이두송이피는梅花 —「처음에 씀」

이 작품은 구어투의 한글체로 쓰면서 도치법과 생략법을 구사하고 있다. 더구나 “송이 큰 꽃나무—대나무—고원—매화”로 이어지는 의미 확장을 통해 이울어진 꽃을 피우기 위해 고통의 현실을 인내해야 한다는 주제를 전달하는데 성공한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듯 고통의 현실은 존재론적 순환의 이법에 불과하다. 고향과 꽃은 고통의 바다를 건넌 때 획득되는 총체적 가치의 실현이다. 깨달음이라는 주제를 관념적으로 묘사한 「심」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처음에 씀」은 시인으로서의 변신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나중에 보겠지만 『님의 침묵』의 88편도 이런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江 上數峰의 푸른빛 너머로 白牡丹가튼 한쪽각가튼 구르미 오른다
 무엇보다도 敏速한 나의腦가 무어슬 늦기라다가 미처 늦기지못한 그 刹那
 구르문 벌써 숨 멨치가치 피여셔 한편 하느를 더퍼온다
 仙娥야 그 숨뭉치 좀 빌여라 가벼운 치위를 견디지못하는 보드러운 싸글 싸주자
 仙娥는 沈黙이다 (중략)
 제아모리 惡魔라도 엇지 마그라 焦土의中에서도
 金石을 두를듯한 眞生命을 가졌든 그 풀의 勃然을
 사랑스럽다 鬼의斧로도 魔의牙로도 엇저지못할 一莖草의 생명 —「一莖草의 生命」 일부

9)이기영, 「화엄사상의 현대적 의의」, 『한국화엄사상연구』(동국대학교출판부,1986) p.334.
 10)조지훈, 「한국의 민족주의자—한용운론」, 『한용운사상연구』, 위의 책, p.262.

한용운은 한 포기 of 풀에서 참 생명의 의미를 이끌어낸다. 꽃은 잠복과 출현, 소멸과 생성의 대립을 극복하는 영원한 순환과 회귀성의 상징이다. 두 편의 시보다 현재형 어미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삶의 현장성이 강화된다. '부드러운 싹—풀—일경초'와 '추위—어둠(수목색의 장막)—악마'라는 대립항을 설정하고 후자가 결코 전자를 훼손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경초에서 강인한 생명력과 저항의지를 읽어낸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글을 초록함은 어느 날 저녁때다. 다 쓰라고 할 즈음에 옆에 있는 분재盆栽의 장미화는 싹싹하게 고운 빛과 사무치게 맑은 향기가 붓대에 오른다. 빠른 감상은 이 빛과 향기를 가져서 모든 열자 패자에게 나누어주고 싶다.¹¹⁾

한용운은 화초를 가꾸며 현상 너머의 본질을 통찰하고 언어의 남용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 화훼를 재배하는 것은 키우는 사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덕성을 기르기 위함凡培植花卉只欲益心志養德性耳¹²⁾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는 유심사 담 너머에 있는 오동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오동은 마력도 없고 성능聖能도 없고 다만 자연일 뿐이거늘 다만 보는 사람이 선미善美를 의욕하여 오동화될 따름이라. 인생과 자연이 어찌 양계兩界가 있으리오. 오동 즉 아我, 아 즉 오동이니 아여오동我與梧桐이 비일비이非—非二니라.¹³⁾ 한용운은 화초를 기르면서 터득한 화초의 특성과 재배법, 각 화초에 관한 옛 사람의 기록, 화초의 품격을 논한 문장이나 시,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담아 『양화소록養花小錄』으로 남긴 강희안 1417-1465의 후예였는지 모른다. 하긴 후학들도 한용운은 화초 가꾸기를 매우 즐겨 심우장 뜰에는 화초들로 가득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어있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화초는 매화 난초 외에 개나리 진달래 코스모스 백일홍 국화 등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이상적 아름다움ideal beauty의 실현자인 선아仙娥는 여전히 '침묵'이다. 정중동의 꽃과 그 꽃을 피우려는 나 사이에 놓인 거리는 멀다. 「천애의 악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신념을 보여준다.

天涯의 惡路, 運命의 神이 아니다 너의 墳墓는 躊躇가아니고무어시나 人生의 逕路는 快樂도 아니오 悲哀도아니오 活動뿐이라 酷寒을마그미 毛外套뿐이라 힘있게運動할지라 盛暑를 避히미 扇風機가 아니다 冷靜한 頭腦는 百道의 清泉을 超越하리라 開山攻城의 大砲도 虛空이야갓칠소냐 넓기도넓다 너의 衿度 제아모리가리고자하지마는 사뭇치는찬 빛이야 黑暗인들엇지하리 崑山의石이 곳지아니하라마는 波斯의 市에 白玉黃玉紅玉靑玉

“천애의 악로, 운명의 신이 아니다.” 이 명제는 그가 획득한 행동적 수양주의의 중핵이다. 직설적인 진술과 관념적 구호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 아쉽지만, 이 시는 그의 삶과 문학을 이끄는 기율과 신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대등하게 주어진 자존과 자유를 성취하라고 촉구하면서, 행동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모든 고난은 보석 같은 '냉정한 두뇌'만 있으면 '사뭇치는 찬빛'처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필 「조선청년과 수양」(1호)은 자기 적성과 취미에 걸맞은 목표를 세우고 용맹정진할 것을 요구한다. 일관적 분투가 필요한 오늘, 물질문명에 오염된 조선청년들은 아직 뜻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물질문명은 인지개발의 과도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점진적 현상이며 인생 구경의 목표는 아니다. 물질문명에 침입당하면서 피문명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배금주의와 영웅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헛된 금전광과 영웅 숭배열은 불평과 번민을 증가시킬 뿐이다. 심적 수양이 없으면 사물의 사역자가 되기 쉽다. 실행은 수양의 소산이며, 정신수양을 하면 물질문명을 이용하여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심리적 수양은 궤도이고, 물질적 생활은 객차이며, 개인적 수양은 원천이며, 사회적 진보는 강호江湖다. 일제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개인의 일상적 허영과 욕망을 경계하고 있는 글이다.

「고통과 쾌락」(1호)은 역설의 논리로 빛난다. 고통을 피하는 자는 쾌락을 찾지만 쾌락은 고통을 피한다. 고통은 차안이고 쾌락은 피안이다. 차안(고통)에서 닳줄을 풀지 않고 피안(쾌락)에 도달할 수 없다. 쾌락이

11)「전로를 택하여 진진하라」, 『유심』1(1918.9) p.16
 12)강희안 지음, 서윤희 이경록 옮김, 『양화소록』(놀와,1999) p.118.
 13)「전가前家の 오동」, 『유심』3(1918.12) p.9.
 14)『전집』6, p.379.

표면이면 고통은 이면이며, 고통이 문이면 쾌락은 집이다. 고통과 쾌락은 감수의 차이로 외계에서 오는 충동의 감촉력에 불과하다. 고통과 쾌락의 원인은 물질에 있지 않고 심리(관념)에 있다. 차별은 자기의 감상을 표준으로 한 일시적 현상이다. 사람은 외계의 사물에 포로 되는 존재가 아니므로 만유의 절정에서서 중횡자재 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번뇌는 보리가 되고 고통은 쾌락이 된다. 고통과 쾌락을 양거쌍망兩去雙忘하면 낙원 아닌 공간이 없고 득의롭지 않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전로를 택하여 진하라」(1호)도 위와 비슷하다. 길에는 선악의 두 길이 있으나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없다. 선이란 죽어지내는 소극성이 아니라 우자優者되고 승자되어 못 사람들을 보호하고 만물을 애육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악이란 열자와 패자 되어 남들에게 동정 받는 자 되고 사물에게 부림을 받는 자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이란 대등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하여 사람답게 사는 일이며, 악이란 대등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차등과 불평등을 자초하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다. 덮어놓고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죄악이다. 열자패자에게는 권리도 의무도 도덕도 법률도 생사도 없다. 조물주는 결코 열자패자를 미리 결정하지 않았다. 중생이 동일불성이고 천부인권이 균시평등이라면 열자는 스스로 열자될 따름이고 패자 역시 그렇다.

한용운의 행동적 수양주의는 자기부정을 통한 실천력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권상로의 자치론적 개혁주의보다 주체적이며, 박한영의 오후悟後 수행주의보다 급진적이다. 그리고 민족주의 진영의 지식인들의 준비론적 수양주의나 관념적 개조론보다 실천적이고 주체적이다. 전투적 자유주의와 행동적 수양주의는 한 뿌리의 두 가지다. 이는 「고학생」(1호)에서도 잘 나타난다. 일시의 빈곤은 대인격을 빛어내는 천연의 사유요 실습의 교육이다. 빈곤은 인생 생활의 진미를 맛보게 해주며 권태를 구축한다. 또한 권면을 증장하며 행복의 황야를 개척하는 분투력을 주며, 민생의 어려움을 연민하는 자선심을 길러주니 어찌 인생의 불행이라 할 수 있는가. 부득이 보조를 받더라도 선의와 불의를 가려야 한다. 비굴로 인한 정신의 손실은 학문의 소득보다 더 크다. 고통을 인내하고 지조를 변치 않고 일신의 복락을 희생하여 중생을 구제한 석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한용운은 이완용과 함께 불교중앙학림 제3회 수업식에 참석했을 때 이와 동일한 의미의 축사를 한 바 있다. 젊은 학생들이 사회적 신분 상승 수단인 교육에 대한 욕망 때문에 친일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불행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마는 자조물이라」(2호)는 마는 망심에서 나오는 환영 곧 자기의 심마心魔이므로 자신自信의 군軍으로 전진하라는 글이다. “마를 항복시키려는 자는 먼저 자기의 마음부터 항복시켜야 하니 마음이 조복하면 곧 모든 마가 퇴청하고 횡을 제어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의 기를 제어해야 하니 기가 평담하면 곧 외부의 횡이 침해하지 못한다.”¹⁵⁾와 동일한 내용이다. 『유심』의 초기시와 산문은 『정선강의 채근담』의 강의와 동일한 사유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자아를 해탈하라」(3호)는 『정선강의 채근담』의 「서」와 동일한 내용이다. 사람은 사물에 계박繫縛되기 쉬운 자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 세계 만유의 주인공이라 자칭하며 오만하지만, 만사사물의 계박을 면치 못하니 얼마나 치욕인가. 계박을 피하고자 하는 소극적 태도, 독선, 포기, 도피도 다른 의미의 계박이다. 계박과 해탈은 타他에 있지 않고 아我에 있으며, 물物에 있지 않고 심心に 있다. 일체의 해탈을 얻으려면 자아를 해탈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입세入世가 출세出世고 출세가 입세라는 역설 곧 반상합도反常合道가 성립한다. 계박의 책임도 해탈의 책임도 모두 나에게 있다. 해탈을 얻어 대지를 답파하면 일체의 마굴은 홀연히 정복되고 쾌락의 식민지로 변한다.

「천연遷延의 해」(3호)도 즉각적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다.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나 그곳에 살면서도 명승을 보지 못하고 늙어 죽는 사람이 있다. 내일을 기약하기만 하고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절로 오는 기회만 기다리는 자가 아니며 기회를 촉진하고 시세를 창조하는 자다. 노력용진하는 자에게 기회가 아닌 때란 없다. 천연하는 자에게는 기회도 없고 성成도 없고 패敗도 없고 사회도 없고 생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이다. 「전가의 오동」(3호)은 앞에서 보았지만 「일경초의 생명」과 함께 자아를 세계화하고 세계를 자아화 또는 일즉다—即多 다즉일多即—의 물아일여 사상이 잘 드러난 글로 그의 문학적 상상력의 모태를 보여준다. 「무용의 노심勞心」(3호)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하고 있다. 과거는 이미가 버려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인생의 최대 기회는 현재에 있다. 지나간 일

15) 「정선강의 채근담」, 『전집』4, p.105

을 회한하여 과거의 노예가 되고 미래를 염려하여 미래의 포로가 됨은 어리석다. 하늘과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勞라 하면 마음을 노하든 역役을 노하든 상당한 반면의 수확을 얻는다. 인과응보의 원칙이다.

「혜예毀譽」(3호)는 풍문과 소문 사이에서 고통을 겪었던 지난날의 체험에서 우러난 글인 듯하다. “세한 연후지 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의미를 깨닫는다)”(『논어』 자한27)라고 했다. 설상霽霜을 능가하는 송백은 해가 찰수록 그 고절을 홀로 드러내고, 진정한 용사는 적이 많을수록 용기백배한다. 남의 혜예로 심사가 어지러워 하던 일을 멈춘다면, 이는 우주의 노예요 만유의 번지다. 남의 혜예에 피동되어서 자신의 입지를 희생하지 말라. 사람은 세상의 혜예를 무시하는 호담이 있어야 만인의 이상을 초월하는 쾌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용운이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선언하고 『정선강의 채근담』과 『유심』에서 확인한 일본의 지배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거부하는 행동적 수양주의는 “세간생세간장世間生世間長(세간에 들어 세간에 난다)”의 중핵적 원리이며 민족 자조론의 다른 이름이다. 아니, 수양을 꽃받침으로, 행동을 꽃잎으로 삼은 황금의 꽃인지 모른다. 그래서 그는 타락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며, 출세간의 은둔과 선각자의 자만을 거부한다. 그가 기르는 꽃은 중생들이 모두 부처될 때까지 피지 않는다. 그가 혁명가와 선승 그리고 시인의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행동적 수양주의를 정신적 기율로 삼았기 때문이다.

모순의 현실을 진실의 역설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행동적 수양주의와 차등을 강조하는 준비론적 수양주의는 다르다. 적자생존론에 바탕한 준비론적 수양주의는 자칫하면 현실타협적인 굴절과 계층 단절론을 마련할 수 있지만, 화엄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행동적 수양주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어쩌면 3.1독립운동 이후 역사의 문과 유혹의 문으로 점차 갈려 나가게 되는 지식인들의 내면 풍경은 이미 『유심』에서 흐릿하게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지 모른다.

5. 우담발화여 피어나라

우담발화優曇鉢華가 재현한 금일로부터 차화此花는 반다시 신위력이 불무不無하여 대광명을 방放하며 자묘음慈妙音を 연演하며 중략 심광법문深廣法門을 사유하는 자는 교투분비交鬪紛飛하든 의상意想이 일시에 침성沈省할 것이니 오호라 미목을 척기시간剏起試看하면 이 우담발화는 백초두번百草頭邊에 발현할 명일이 필유必有할 것이라.

만해의 영혼의 도반이었던 박한영이 『유심』에 발표한「우담발화재현어세優曇鉢花再現於世」(1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담발화Udumbara는 현실의 꽃이 아니라 일체법의 최정각(유심)을 상징하는 꽃인데, 이 꽃은 조선조 이후 시들어 가다 '난데없는 참천형극參天荆棘'을 맞아 이 땅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유심사가 출현했고, 각오를 새롭게 하면 이 꽃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이다.

이 글은 박한영이 안으로는 국민의 정신 수양을, 밖으로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각성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한용운의 뜻을 잘 헤아려 불교적인 비유를 빌려 잘 표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용운의 '송이 큰 꽃나무'와 '한송이 두송이 피는 대화'와 박한영의 우담발화는 유심을 상징한다. 박한영은 한용운이 1912년 굴라재 고개에서 생과 사의 고비를 넘나들 때 관세음보살에게 받았다는 그 황금의 꽃을 우담발화로 재해석한 것이다. “청연화 흥, 적, 백연화가 물에서 나와 물에서 자라고 물에 뿌리내리지 않듯이 여래는 세간에서 크고 세간의 법에 있어도 세간의 법에 뿌리내리지 않는다.”¹⁶⁾

그렇다. 한용운의 삶은 이 황금의 꽃을 찾는 영혼의 여행이었다. 화려한 꽃도 이름 없는 꽃도 모두 그 나름대로 온 힘으로 존재한다. 스스로 전 존재를 들어 그것이 바로 진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꽃은 없음으로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우담발화의 부재를 현존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재는 현존이고 고통은 쾌락인 것. 이렇게 사유하였을 때 필연적으로 다가오리라 믿어지는 세계는 모든 정의가 실현되는 자유의 세계다. 창조적인 부정정신을 극적으로 체현하고 있는 황금의 꽃은 부처이자 님이며, 일체법의 최정각이자 유심인 것이다.

16)「우담발화재현어세」,『유심』1(1918.9) p.30.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마른 국화를 비며서 코에 대이며’ 깊은 상념에 잠겼던 만해가 ‘자기 생명의 일부’이자 ‘님’으로 사랑했던 꽃이 가득 피어날 심우장의 꽃밭은 함께 복원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¹⁷⁾

망각의 강 너머로 사라졌던 심우장의 꽃밭을 복원하게 된 기쁨에서 비롯된 감개로 이런 글을 썼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만해를 더 이상 살아남은 자들의 동상 아니 문화기억으로 만들 수 없다는 나름대로 절박한 마음을 조금씩 나누어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 아니면 우담발화 그 깨달음의 꽃은 심우장의 꽃밭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 기쁨에서 그랬는지 모른다.□

—약력

1956년.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만해연구소 소장.

저서로 『한국근대문학지성사』 『숨어있는 황금의 꽃』 『불가능한 꿈을 꾸는 자의 자화상』 『탕지아의 붉은 기둥』 『한용운과 그의 시대』 등이 있고 편저와 역서로 『일본문학사상·명저사전』 『일본메이지문학사』 『일본다이쇼문학사』 『일본쇼와문학사』 『일본현대문학사』(상하) 등이 있다.

17) 동국대학교 만해연구소, 「2015 만해축전 ‘만해와 함께 떠나는 아름다운 만행萬行」 필자가 1982년 2월 심우장을 방문했을 때 만해의 제자 김관호(1905-1998)가 황량한 겨울의 꽃밭을 가리키며 “선생은 늘 꽃을 생불(生佛)이라고 하셨다.”며 회고하다가 다시 담장 옆의 향나무를 바라보며 “이 나무는 선생님이 회갑 때 심었는데 이리 잘 자라고 있네요.”하면서 배웅해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향나무와 대문 옆의 소나무는 성북구에서 지정한 기념수로 아름답리 위용을 자랑하고 있어 감개무량했지만 꽃밭은 사라져 안타까웠다. 다행히 성북구청에서 이번 행사를 마친 후 관리인이 사는 집을 철거하고 꽃밭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심우장의 모습이 기대된다.